

※ 명(1368 ~ 1644)

- 성립 : 원 말기 백련교도의 난 → 흥건적 출신의 주원장이 대도 점령, 난징 도읍, 명 건국 → 육유 제정, 승상제 폐지, 이갑제 정비, 해금령(1371~) 실시
- 발전 : 영락제(⑤, 재위 1402 ~ 1424) 때 베이징으로 천도(1421), 몽골 공격, 베트남의 수도(탕롱) 점령(1407), 정화의 항해 추진(1405 ~ 1433)
- 쇠퇴 : 몽골의 침략[토목보의 변(⑥ 정통제, 오이라트부, 1449), 경술지변(⑩ 가정제, 타타르부 알탄 칸의 침략, 1550)], 왜구의 약탈 등 → 북로남왜의 화
- : 해금 정책 동요(1567) → 무역의 제한적 허용 등으로 해결 노력

※ 조선(1392 ~ 1910)

- 건국 : 명의 철령위 설치 통고와 고려의 요동 정벌 →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1388) → 급진파 신진사대부와 신흥 무인세력의 조선 건국(1392)
- 사대교린의 외교 : 명과 책봉·조공 관계(1401~), 무역소를 설치하여 여진과 교역, 일본에 강경책과 회유책 실시[쓰시마 정벌(1419), 3포 개항(1426), 계해약조(1443)]
- : 16세기 일본과의 교역 통제 강화(임신약조·정미약조) → 삼포왜란(1510), 을묘왜변(1555) 등 발생

※ 일본 무로마치 막부(1336 ~ 15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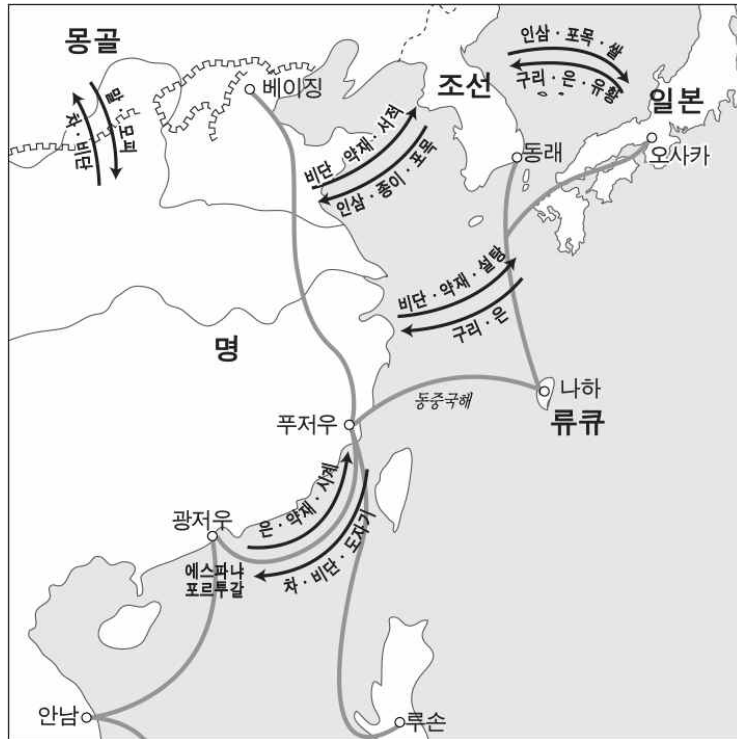
- 아시카가 요시미쓰의 남·북조 분열 통일(1392) → 명(明)과 국교 수립(아시카가 요시미쓰, 일본 국왕 책봉, 1401) → 명과 감합 무역 전개(1404 ~ 1523)
- 오닌의 난(1467 ~ 1477)
 - ↳ 센고쿠 시대(1467 ~ 1573) → 나가시노 전투(오다 노부나가 + 도쿠가와 이에야스 對 다케다 가쓰요리, 1575) →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통일(1590)

※ 류큐(1429 ~ 1879)

- 오키나와 열도에 14세기 세 왕조(중산·북산·남산) 출현 → 중부의 중산 왕조가 삼국 통일 → 류큐 왕국 수립(1429)
- 일본 시마즈씨[島津氏]의 침입(1609) → 메이지 정부의 정복(1879), 오키나와 현

※ 베트남

- 대월(쩐 왕조)의 쇠퇴·멸망(1400) → 호 왕조 수립(1400) → 명(明)의 침략과 호 왕조 멸망(1407) → 레 러이의 항쟁과 대월(레 왕조)의 독립(1428), 탕롱(하노이) 수도 → 명(明)으로부터 책봉



명(明)은 조공 횡수를 국가마다 지정하였는데, 베트남은 3년에 한 번, 일본은 10년에 한 번 정도를 지정해 주었다. 이에 비해 류큐는 1년에 한 번으로 우대 받고 있었다. 이에 따라 류큐는 공식적인 방법으로 더 쉽게 더 많이 중국 상품을 얻을 수 있었다. 한편, 명의 해금 정책으로 명 상인이 해외로 진출하기 어려워진 점도 류큐 상인이 활동하기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었다. 그리하여 류큐는 14세기 후반부터 16세기 전반에 걸쳐 명과의 조공 무역을 중심으로 일본,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잇는 중계 무역을 왕성하게 전개하였다. 왼쪽 지도에 나온 류큐 왕국의 교역로는 류큐가 명의 상품을 일본, 조선, 동남아시아 등지에 팔고, 각국의 특산품을 배에 싣고 돌아왔음을 보여준다. 해외에서 조달한 물품에 자국의 생산품을 더하여 명으로 수출하고, 다시 배에 중국 상품을 가득 채워 귀환하는 전형적인 중계 무역을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류큐의 중계 무역은 1567년 명의 해금 정책 완화와 유럽 상인의 진출로 점차 쇠퇴했지만, 그 위상은 여전하였다.

임진 전쟁이 끝난 뒤인 1609년 일본의 사쓰마 번이 류큐를 정복하였다. 그러나 일본에 정복된 이후에도 류큐는 명과의 조공·책봉 관계를 지속(양속 관계)하였다. 일본이 류큐를 통한 명과의 교섭이나 무역이 갖는 이익을 염두에 두고 이중적인 관계를 허용하였기 때문이었다. 이 같은 관계는 이후에도 지속되다가 1879년 일본 메이지 정부가 류큐를 하나의 현으로 만들고 이어 오키나와로 개명하면서 끝났다. 태평양 전쟁(1941 ~ 1945) 때 미군에 의해 점령되어 미군 기지가 건설되었고, 지금도 일본 최대 미군 기지가 있다.

<p>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몽골 부족이 무역을 요구하며 수시로 침략 : <u>토목보의 변(오이라트 부, 1449)</u>, <u>경술지변(타타르 부 알탄 칸의 베이징 포위, 1550)</u> 등 몽골의 강력한 위협에 직면 ↳ 몽골과 강화를 맺어 군사비 절감 • Ningbo의 난(1523) → 감함 무역 중단(1547) : <u>왜구가 출몰</u>하여 동남 해안에서 잇따른 약탈 자행[가정제(㉞, 재위 1521 ~ 1567), <u>해금 정책 강화</u>] : 척계광(1528 ~ 1588)이 화약으로 왜구 섬멸(1566) • 포르투갈의 마카오 거주권 획득(1557) • 신종 만력제(㉟, 재위 1572 ~ 1620) 때 <u>장거정(1525 ~ 1582)의 개혁 정책</u> 추진 : 관료들의 업적을 엄격하게 평가, 토지 조사(토지 장량), 일조편법의 전국적 시행으로 국가 재정의 상당한 호전 • 장거정 사후 관료와 신사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환관 세력의 전횡으로 정치적 혼란 심화
<p>조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훈구와 사림의 대립(사화) → <u>사림의 집권</u> → 붕당의 성립 및 붕당 간의 대립 격화 • 대지주의 토지 겸병 등으로 농민이 몰락하면서 군에 복무할 인원과 전세 수입 감소 ↳ 농민에게 부과하던 군역 대신 군포 징수, 군적에 등록된 인원은 크게 줄지 않았으나, 실제 전쟁에 동원할 수 있는 군인이 크게 감소 • <u>사대교린의 외교 정책</u> : 명 → 정기적으로 사신을 보내 조공 : 일본 → 3포(부산포·내이포·염포) 중심 교역, 3포의 왜관에 거주하던 일본인들이 교역이 원만하지 않자 난을 주도(삼포 왜란, 1510)
<p>일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오닌의 난</u>(1467 ~ 1477) : 다이묘의 패권 쟁탈전 전개, 100여 년에 걸친 센고쿠(전국) 시대의 혼란 지속 • 포르투갈 상인의 <u>조총 전래(1543)</u> : 다이묘들의 패권 다툼에 이용되면서 센고쿠 시대의 세력 판도 변화 • <u>도요토미 히데요시</u>의 전국 시대 통일(1590) : 전국적인 <u>토지 조사(검지)</u>, 석고제(石高制, = 코쿠다카) 실시, 도량형 통일, <u>무기 몰수령(도수령)</u> 시행 : 무사·상공업자·농민의 신분 이동 금지, <u>병농 분리 확립</u> → 무사·상공업자의 거주지(조카마치)와 농민의 거주지(농촌) 구분 : 정명향도(征明嚮導) 요구에 대한 조선의 거부 → 조선 침략

① 계해약조(『미래엔 교과서, 수능 특강』, p.87 · 79)

- 대마도 도주에게 매년 200석의 쌀과 콩을 하사한다.
- 대마도주는 매년 50척의 배를 보낼 수 있고, 부득이하게 보고할 일이 있으면 정해진 숫자 외에 특송선을 보낼 수 있다.
- 부산포, 제포, 염포 등 3포에 머무르는 날짜는 20일로 한정하고, 간수인(看守人)은 50일로 하며 이들에게 식량을 지급한다. - 『증정교린지』

② 조선의 군역 문란(『금성 교과서, 수능 특강』, p.89 · 72)

백성들의 고생이 지금보다 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 보병이 한 번 군역에 복무하는 데 드는 값이 배 150필까지 되므로 가난한 백성이 파산하여 집안이 망하고, 두 번 복무하면 지탱할 수 없어 도망쳐 흩어집니다. 도망치면 그 친척에게 거두기 때문에 친척도 지탱하지 못하고 모두 흩어집니다. - 『중종실록』, 중종 32년(1537)

③ 일본의 조총 전래(『미래엔 교과서, 수능 특강』, p.88 · 73)

덴분(天文) 12년(1543)에 말이 통하지 않는 괴상한 생김새의 사람들을 태운 배가 표류하다가 다네가시마에 도착하였다. 그 배에 타고 있던 오봉이라고 하는 명나라 유생이 필담으로 언급한 내용에 따르면 배 안의 손님은 ‘서남 야만족 상인(포르투갈인)’ 이었다. 상인의 우두머리가 갖고 있던 길이 2, 3척의 낫선 무기는 굉음과 함께 탄환을 표적에 적중시키는 위력을 지니고 있었다. 다네가시마 도키타카는 그 철포를 넘겨받자마자 사격 기술을 익히고, 이듬해에는 제조법도 부하들에게 습득시켰다. 그 후 철포는 빠르게 전국으로 퍼졌다. - 『뱃포기』

④ 도검 몰수령의 시행(『비상 교과서』, p.88)

백성들이 도(刀), 단도, 활, 창, 철포, 기타 무기·무구류를 소지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그 이유는 불필요한 무구류를 백성들이 가지고 있으면 연공 등의 납입을 꺼리거나, 혹은 봉기를 일으켜 다이묘에게 토지를 받은 자에게 불법을 저지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자는 당연히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 거두어들이는 무기들은 대불을 건립하는 데 못, 꺾쇠의 재료로 사용하도록 할 것이다. - 시마즈가 문서 353호

⑤ 북로남왜의 화(『수능 특강』, p.81)

- 가정 29년(1550)에 타타르의 **알탄**이 군대를 백묘(白廟)로 이동시켜 고북 가까이에 이르렀는데, 합주아가 거짓으로 적이 이미 물러갔다고 말하여 변경의 방비를 느슨하게 하니, 알탄은 마침내 합자동·조유구를 경유하여 들어와 곧바로 베이징 지역을 침범하였다.
- 가정 32년(1553) 3월에 왕직이 여러 왜구들을 결집하여 대거 노략질하였는데, 수백 척의 전함이 연이어 바다를 뒤덮었다. 절동, 절서, 강남, 강북 연해의 수천 리에서 동시에 왜구가 출몰했다는 긴급 상황이 보고되었다. 왜구는 창국위를 격파하였다.

<p>배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요토미 히데요시[관백(關白), 1537 ~ 1598]의 팽창 정책 : 명과의 무역 재개에 대한 열망, 과도한 군사력의 배출, 영토 확장 등을 위해 적극적인 대외 진출 모색 • 명 침략에 협조할 것을 조선에 요구(征明嚮導) → 조선의 거절 • 16만여 명의 병력으로 조선 침략(1592. 4月) 	
<p>전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쟁 초기 : 일본군의 우세 → 오랜 내전을 통해 얻은 풍부한 전투 경험과 조총(鳥銃)의 위력을 바탕으로 연이어 승리(부산진, 탄금대 전투) • 선조(㉔, 재위 1567 ~ 1608)의 평양 피란(4. 29) → 의주 피란(6. 11) → 명에 원군 요청 • 각지에서 의병 봉기, 이순신이 이끄는 수군의 활약(한산도 대첩, 7. 8) → 전쟁의 양상 변화 • 베이징의 울타리인 요동이 위협받을 것을 염려한 명의 참전(12月) → 동아시아 삼국의 국제전으로 확대 → 전세 역전 • 조·명 연합군의 평양성 탈환(1593. 1月) • 명군의 벽제관 전투 패배(1593. 1月) → 한성(한양) 탈환에 실패 → 전쟁의 교착 상태 • 명과 일본 사이에 강화 협상 시작(1593. 5月) → 일본의 과도한 요구로 협상 결렬 • 일본군의 재침(정유 전쟁, 1597. 1月) → 명량 대첩(1597. 9月) • 도요토미 히데요시 병사(1598. 8月) → 전쟁 종료 	
<p>결과</p>	<p>중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의 쇠퇴 → 후금(1616)의 성장
	<p>조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 황폐화, 명에 대한 사대[재조지은(再造之恩)] 강화 • 광해군(㉕, 재위 1608 ~ 1623)의 전란 수습 정책 : 토지 대장과 호적 재정비, 불에 탄 궁궐과 성곽 수리, 『동의보감』 간행(1613) • 항왜인[降倭人, 귀순 왜장 사야가(김충선)], 항왜촌(降倭村)
	<p>일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쿠가와 이에야스(1542 ~ 1616) : 세키가하라 전투(1600) → 에도 막부 수립(1603) • 문화 발전 : 성리학의 이해 심화(강항), 도자기 발달(이삼평, 아리타 현 자기) • 조선과 국교·교역 재개 : 포로 송환 협의(1604), 회담겸쇄환사 파견(1607·1617·1624), 조선통신사 재개(1607 ~ 1811), 기유약조(1609)

① 일본이 요구한 주요 강화 조건(『천재·금성 교과서』, p.89·91)

- 명 황제의 딸을 일본 천황과 결혼시킬 것
- 명과 일본 양국의 전권대신이 통교를 서약하는 문서를 교환할 것
- 조선의 남부 4도(경상, 전라, 충청, 경기)를 일본에 할양할 것
- 일본과 명의 무역을 재개하여 관선과 상선을 왕래하도록 할 것
- 조선 왕자 한 명을 일본에 볼모로 보낼 것
- 일본은 포로가 된 조선의 두 왕자와 대신을 송환할 것
- 조선의 중신이 일본에 영원한 항복을 서약할 것

- 『선조실록』 1596. 4. 10

② 명의 참전 목적①(『금성·비상 교과서』, p.101·93)

조선은 동쪽 변방에 끼어 있어 우리(명)의 왼쪽 겨드랑이와 가깝습니다. 평양은 서쪽으로 압록강과 인접하고 진주는 직접 등주를 맞대고 있습니다. 만일 일본이 조선을 빼앗아 차지하여 라오둥을 엇본다면 1년도 안 되어 베이징이 위협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조선을 지켜야만 라오둥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 왕재진, 『해방찬요』

③ 명의 참전 목적②(『금성 교과서, 수능 특강』, p.90·73)

신이 근심하는 것은 조선이 아니라 우리나라(명) 국경입니다. …… 라오둥은 베이징의 팔 같은 것이고, 조선은 라오둥의 울타리 같은 것입니다. …… 200년 동안 푸젠성과 저장성이 항상 왜(왜구)의 화를 입었으나, 라오양과 텐진에 왜가 없었던 것은 조선이 울타리처럼 막았기 때문입니다.

- 『선조수정실록』

④ 임진·정유 전쟁의 피해(『천재 교과서, 수능 특강』, p.91·74)

- 적군의 배(일본 배)에 강제로 태워져 순천 앞바다까지 가는 동안 600 ~ 700척의 배가 바다를 메우고 있었다. 이들 배에는 우리나라의 남녀가 일본인과 거의 같은 수로 있었는데, 배마다 나오는 통곡 소리가 바다와 산을 진동시킬 정도였다. - 강항, 『간양록(看羊錄)』
- 일본 나고야성에 도착한 사타케 요시노부는 ‘농민들이 세금을 내지 않으면 여자나 어린아이를 가리지 않고 죽여도 좋다. 마을이 폐허가 되어도 상관 없다.’라고 지시하였다. 그렇게 해서 사타케군이 인부로 동원한 일반 백성은 약 1,500명이었다. 탈주자가 생기자 죽여서라도 탈주를 막으려고 하였다. - 『마주 보는 한일사』(2007)

▶ 정묘 전쟁(1627)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해군(㉑, 재위 1608 ~ 1623)의 중립 외교 : 명 ~ 후금, 사르후 전투(1619), 강홍립(1560 ~ 1627)의 투항 • 인조반정(1623) : 광해군의 집권과 대내외 정책에 반감을 품은 서인 일파의 정변 → 광해군 폐위, 인조(㉒, 1623 ~ 1649) 즉위 • 서인 정권의 친명배금(親明排金) 정책 : 가도 사건[가도도독부 도독 모문룡(1576 ~ 1629)에 대한 지원 강화, 1623] • 이괄의 난(1624)과 잔여 세력의 후금 투항 • 후금의 선양(瀋陽) 천도(1625) • 영원성 전투(1626) → 누르하치(1559 ~)의 사망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금 홍타이지(재위 1626 ~ 1636)의 침략 → 황해도 평산(平山)까지 침입, 인조의 강화도 피란, 2개월간 지속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묘약조(1627) : 명의 위협 등을 의식한 후금이 조선과 형제의 맹약을 맺고 철수 → 조공 지급, 개시무역(開市貿易) 실시

▶ 병자 전쟁(1636)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금의 칭제건원(稱帝建元), 국호를 청(淸)으로 변경(1636), 조선에 군신관계 요구 : 주화론(主和論)과 척화주전론(斥和主戰論)의 대립 → 척화론의 우세와 군신관계 요구 거부 → 태종(승덕제, 재위 1636 ~ 1643)의 침략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일 만에 한성 함락 → 인조의 남한산성 피신 → 왕비와 왕족이 피란해 있던 강화도 함락 → 각지에서 올라오던 구원군의 패배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 ~ 청, 조공·책봉의 군신관계 체결(1637) : 삼전도의 굴욕(삼계구고두), 명과 관계 단절, 청태종공덕비 건립(= 삼전도비, 1639), 연행사(燕行使) 파견 : 소현세자와 봉림대군, 척화론자 압송 → 심양관(1637 ~ 1644) : 환향녀(속환녀), 반청 의식 고조(대명거사, 승정처사) • 이자성의 반란군의 베이징 점령 → 명의 멸망(1644)

① 일본 교과서의 임진·정유 전쟁에 대한 기술(『천재 교과서』, p.92)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일본에 조공하고, 명을 침공할 때 앞장서라고 조선에 요구하였다. 조선이 이를 거절하자, 1592년(분로쿠 원년) 조선에 16만 여의 대군을 보내 침략 전쟁을 시작하였다(분로쿠의 역). …… 명으로부터 원군이 도착하고, 각지에서 조선 민중이 의병을 일으켰다. …… 히데요시는 명과의 강화 교섭을 위해 휴전했지만, 교섭은 결렬되었다. 1597년(계이초 2), 히데요시는 다시 조선과 전쟁을 시작하였다(계이초의 역). - 『신선 일본사 B』

② 청 태종(『수능 특강』, p.84)

만주의 신(臣)이 감히 하늘과 땅에 고합니다. 저와 같은 하찮은 존재가 칸의 자리를 계승한 이래 대도(大道)를 위하여 항상 힘쓰기를 10년이 되었습니다. 하늘의 자비로 몽골을 하나로 통합하고 옥새와 강토를 얻었습니다. …… 뭇 사람들의 뜻을 따라 황제의 존호를 받아들이고 국호를 고쳐서 대청, 연호를 개원하여 승덕 원년으로 하였습니다.

③ 최명길(1586 ~ 1647)의 주화론(『천재·금성 교과서』, p.90·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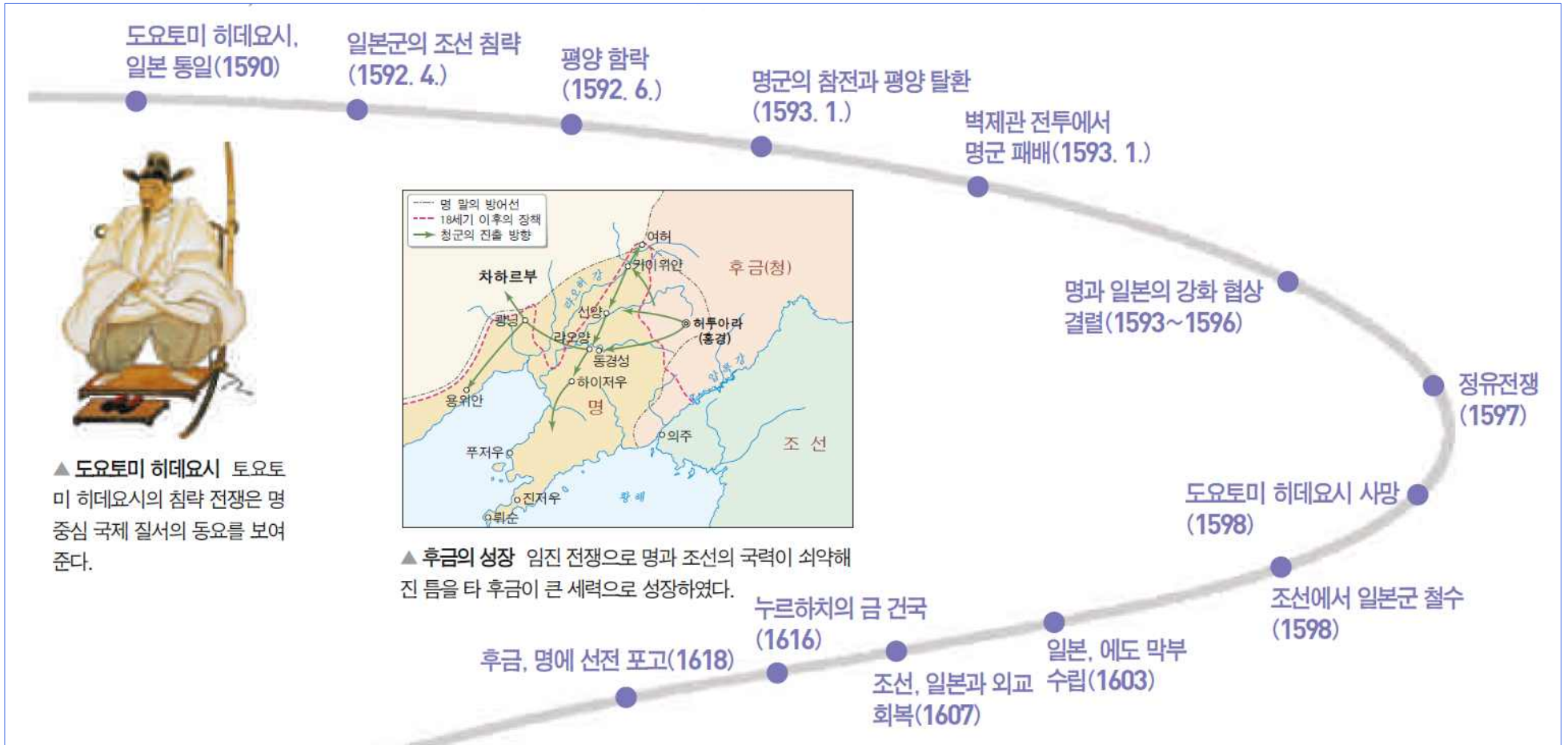
주화(主和), 이 두 글자가 신의 일평생에 허물이 될 줄 잘 압니다. …… 자신의 힘을 생각지 않고 경망하게 큰소리를 치다가 오랑캐의 노여움을 사서 결국 백성을 도탄에 빠뜨리고 종묘와 사직이 끊어지게 한다면 그 허물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국력은 고갈되었고 오랑캐는 병력이 강성합니다. 정묘년 때의 맹약을 지켜서 몇 년이라도 화를 늦춰야 합니다. 그 사이 어진 정치를 베풀어 민심을 수습하고 성을 쌓고 군량을 저축해야 합니다. - 『지천집』

④ 윤집(1606 ~ 1637)의 척화론(『천재·금성·미래엔 교과서』, p.90·93·95)

천조(명)는 우리나라에 부모의 나라이고…… (후금과) 형제의 의를 맺음으로써 부모의 은혜를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임진년의 일은 작은 것조차도 황제의 힘이니, 우리나라가 살아 숨쉬는 한 은혜를 잊기 어렵습니다. 지난번 오랑캐의 세력이 크게 확장하여 명의 수도를 핍박하고 황릉을 더럽혔는데…… 병력이 미약하여 정벌에 나가지 못하였지만, 차마 이런 시기에 어찌 다시 화의를 제창할 수 있겠습니까. - 『인조실록』 1636. 11. 8

⑤ 일본의 중국 인식(『수능 특강』, p.75)

승정제(世宗, 의종 민황제, 재위 1627 ~ 1644)가 사망하고 (남명을 수립한) 홍광제는 달로(撻虜, 여진)에게 패하였다. 당왕이라든가 노왕이 겨우 남쪽 귀퉁이를 보존할 뿐 중원은 달로가 횡행하고 있다. 이것은 화(華)가 이(夷)에 의해 대체되는 사태이다. …… 최근에 오삼계나 정경이 각 성에 격문을 날려 (명 왕조) 회복을 위한 군병을 일으켰다. 그 승패의 행방은 듣지 못했지만, 만약 이가 화를 대신하는 사태가 된다면, 비록 이역의 일이라고는 해도 이 어찌 상패한 일이 아니겠는가? - 하야시 순사이, 『화이변태(華夷變態)』



Check!

동아시아의 전쟁과 정세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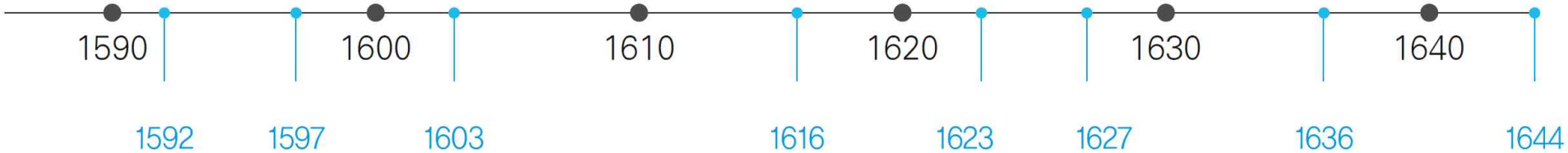


지역(나라)	임진 전쟁	병자 전쟁
중국 본토 · 만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의 약화 • 여진족의 성장 → ()의 건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멸망 • () 중심의 국제 질서 수립
조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에 대해 ()의 인식 강화 • 일본과 국교 재개 → () 파견 • 인조반정 이후 ()의 외교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과 조공 · 책봉 관계 ↳ () 파견 • ()과 조선중화주의 의식 대두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막부 성립 • 조선과 국교 재개, 명 · 청과 정식 국교를 맺지 않음 	

Check!

동아시아의 전쟁과 정세의 변화(연도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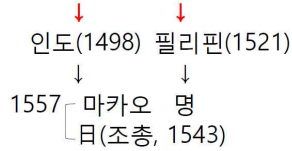
- 임진 전쟁
- 정유 전쟁
- 에도 막부 성립
- 후금 건국
- 인조반정
- 정묘 전쟁
- 명 멸망
- 병자 전쟁



개념 Check

- ① 포르투갈 상인에 의해 1543년 수용된 ()은 센고쿠 시대의 세력 판도에 변화를 가져왔고, 1549년에는 ()가 전래되었다.
- ② 오이라트부에 의해 발생한 1449년의 () 이후 명은 만리장성을 개축하였다.
- ③ 장거정(1525 ~ 1582)은 수취 제도를 개혁하여 ()을 확대 시행하였다.
- ④ 조선의 사림은 ()를 겪으면서도 향촌 사회에서 서원과 향약을 기반으로 꾸준히 성장하였다.
- ⑤ 일본은 ()을 계기로 100여 년에 걸친 센고쿠 시대의 혼란이 지속되었다.
- ⑥ 1575년 () 전투에서 오다 노부나가 이끈 연합군이 조총을 이용하여 다케다 가쓰요리의 기마 부대를 격파하였다.
- ⑦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을 시행하여 무사만이 무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 ⑧ 평양성 탈환 이후 이어송이 이끄는 명군은 ()에서 일본군에게 대패하였다.
- ⑨ 조선은 임진·정유 전쟁 이후 ()를 체결하여 일본과 관계를 개선하였다.
- ⑩ 누르하치는 팔기제를 조직하여 군사력을 강화하고 ()을 건국하였다.
- ⑪ ()은 명과 후금 사이에서 중립 외교를 추진하였다.
- ⑫ 1623년 인조반정 이후 집권한 서인 세력은 가도에 주둔하던 명의 장수 ()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 ⑬ 병자 전쟁의 결과 청에 굴복하여 ()에서 인조가 항복 의식을 실시하였다.

• 16C 서양 신항로 개척[포르투갈·에스파냐], 예수회 선교사 진출



명(1368~1644)

- ① 토목의 변(1449), 경술지변(알탄칸, 1550)
동남 해안 → 왜구 침략(16C)
- ② 쌀·은 유통 → 빈부격차, 세금 부담
- ③ 장거정 개혁 - 일조편법(1573)
(1525~1582)

조선

- ① 훈구(공신, 대토지) ↔ 사림(향촌) : 사화
↳ 붕당(1575)
- ② 평화 지속(국방력 약화, 수취 제도 문란)

일본

- ① 센고쿠 시대(다이묘, 분열, 조총)
- ② 통일(도요토미) - 토지 조사(검지), 석고제(1590)
- 도량형 통일
- 무기 물수령(도수령)
- 무사·상공업자·농민
[신분 이동 금지]
- 병농 분리
* 조카마치(무사, 상인)

영향

- ① 朝 : 국토 황폐화, 명에 대한 사대[재조지은(再造之恩)] 강화
- ② 明 : 쇠퇴 → 재정 악화, 환관 횡포, 농민 봉기
- ③ 日 : 도쿠가와 이에야스, 세키가하라 전투(1600) → 에도막부(1603)
포로[도공(이삼평, 백파선, 아리타), 성리학(강항)]
통신사 재개(1607), 회답검쇄환사, 기유약조(1609)
- ④ 여진 : 누르하치 부족 통일, 후금(1616, 팔기제), 명 공격

임진 전쟁(1592)

- ↳ 정명향도 요구 → 조선 거부
- ① 부산 상륙(4월), 초반 일본 승리(조총)
- ② 선조 의주 피난, 의병 활약
- ③ 조·명 연합군 → 평양성 탈환(1593. 1월)
- ④ 명, 벽제관 전투 패 → 휴전 협상 → 日 무리한 요구 → 결렬
- ⑤ 정유전쟁(1597) : 日 재침략
- ⑥ 도요토미 히데요시 사망(1598. 8월) → 철수
- ⑦ 이순신, 노량해전(1598. 11월)

- 광해군, 중립외교(明 원병 요청 파견)
↑(반정) ↳ 강홍립 항복(1619)
- 인조와 서인, 친명배금 → 후금 반발

병자 전쟁(1636)

- ① 후금 → 淸(1636), 칭제건원
 - ② 淸 → 군신관계 요구
 - ③ 남한산성 항전
 - ④ 삼전도의 굴욕
(조공책봉)
- 병자 전쟁 이후 ←

- 중**
- ① 明 멸망(이자성의 난, 1644)
- ② 淸, 베이징 점령(1644)
- ③ 강희제, 삼번의 난 진압(1681)
타이완 정벌(1683)

- 조선**
- ① 북벌론[효종(1649 ~ 1659)]
- ② 조선 중화주의 확산
- ③ 淸 → 연행사 파견
- ④ 日 → 초량 왜관 복구, 통신사

- 에도**
- 明·淸과 국교 맺지 않음
- 조선·류큐와 국교 유지

▶(가), (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가) 고다이교 일왕은 가마쿠라 막부를 멸망시키고 일왕의 주도권 아래 일본을 통일하여 이른바 공가일통(公家一統)을 실현하였다.
 (나) 각지의 고다이교 일왕 지지 세력이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자, 고다이교 일왕은 교토를 탈출, 지카후사 등의 도움을 받아 요시노산으로 들어가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였다.

- ① 헤이조쿄가 건설되었다.
- ② 정강의 변이 발생하였다.
- ③ 교토에서 새로운 일왕이 옹립되었다.
- ④ 조선이 3포를 통해 일본과 교역하였다.
- ⑤ 고려와 원의 군대가 일본을 침략하였다.

▶지료의 상황이 나타낸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저들이 제멋대로 황제의 칭호를 사용하더라도 우리와의 관계가 전과 다름없다면 참견할 일이 아닙니다. 저들과 맺은 형제의 약조를 지키면서 내치(內治)에 힘을 쓰는 한편, 의주의 방어 체제를 다져 나가는 것이 팔도를 보전하는 좋은 계책일 것입니다.

	(가)	(나)	(다)	(라)	(마)	
세키가하라 전투	후금 건국	인조 반정	정묘 전쟁 발발	삼전도의 항복	이자성의 베이징 점령	

- ① (가)
- ② (나)
- ③ (다)
- ④ (라)
- ⑤ (마)

▶ 다음 대화가 이루어진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평양성을 함락시킨 저들은 어떤 조건을 내세우던가요?



가도에 있는 명의 모문룡 군대에 대한 지원을 끊고, 자신들에게 목면 등의 세폐를 보내며 국경 지역에서 개시를 열어 준다면 철군한다고 합니다.



(가)	(나)	(다)	(라)	(마)	
벽제관 전투	세키가하라 전투	사쓰마 번의 류큐 침공	광해군 폐위	홍타이지의 칭제건원	이자성의 베이징 점령

- ① (가)
- ② (나)
- ③ (다)
- ④ (라)
- ⑤ (마)

▶ 16 ~ 17세기 동아시아의 사건 전개

삼포왜란(____년) → 포르투갈 마카오 조차(____년) → 에스파냐의 마닐라 점령(____년) → 나가시노 전투(____년) → 정유 전쟁(____년) → 세키가하라 전투(____년) → 기유약조 체결(____년) → 오사카 전투(____년) → 영원성 전투(____년) → 병자 전쟁(____년)

▶ 병자 전쟁 이후 동아시아 질서의 재편

조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과 국교를 끊고, 청과 조공·책봉 관계 수립 ↳ 청이 명을 공격할 때 군사적 지원 강요 • 효종(㉒, 재위 1649 ~ 1659) 대 북벌 논의 ↳ 서인 송시열(1607 ~ 1689)의 기축 봉사[존주대의(尊周大義)·복수설치(復讎雪恥), 1649] ↳ 실행에 옮기지는 못하였으나 중화 문명의 유일한 후계자라고 자부하는 조선 중화주의 확산 • 비변사의 기능 강화, 5군영과 속오군 등 군사 조직 정비 • 농민의 생활 안정과 국가 재정의 확보를 위해 영정법, 대동법, 균역법 등 수취 제도 시행 • 노비의 도망이나 군공, 납속책 등으로 양천제가 붕괴되고 새로운 신분제 형성
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을 제압하고 중원 공략에 전념 • 이자성의 농민군이 명을 무너뜨린 틈을 타 베이징 점령(1644), 팔기병과 투항한 한인·몽골인 부대를 앞세워 중원 장악 • 강희제(㉔, 재위 1661 ~ 1722) : 삼번의 난(오삼계·상지신·경정충, 1673 ~ 1681) 진압, 타이완의 정씨 세력[정성공(1624 ~ 1662)·정경의 난, 1661 ~ 1683] 제압 • 건륭제(㉖, 재위 1735 ~ 1795) : 티베트, 신장, 몽골까지 포함하는 거대한 영토 확보 → 새로운 동아시아 질서의 중심으로 성장

Check!

중화 의식의 변화 - 자국 중심의 중화주의

병자전쟁(1636)과 명(明)의 멸망(1644)은 조선의 지식인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지난 200년 동안 명 주도의 국제 질서를 규정한 화이론(華夷論)에 대한 문제의식이 전면에서 나타났다. 송시열을 비롯한 지식인들은 조선 중화주의를 내세우며 조선의 정체성을 재확인하고자 하였다. 송시열이 쓴 ‘해동(조선)의 하늘과 땅은 주(周)나라를 높이 받드는 것이 대의이다.’ 라는 이 여덟 글자는 조선 중화주의의 대표적 인물인 그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한편, 청의 옹정제(㉔, 재위 1722 ~ 1735)는 1729년 『대의각미록』을 간행하여, 오랑캐라 하더라도 천명을 받으면 중원을 지배할 수 있다며 만주족의 중원 지배를 합리화하였다. 비슷한 시기 일본의 야마자키 안사이(1619 ~ 1682)는 일본형 화이관을 내세우며 만세 일계의 신국으로서 일본의 중화적 정체성을 설명하였다. 이 시기 청, 조선, 일본은 모두 자신이 속한 집단을 중화로 인식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전쟁 이후 동아시아의 문물 교류

<p>일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에서 많은 서적과 구리 활자, 불화 등을 약탈 • 유학자와 도공, 목수, 한지 제작공, 인쇄공 등의 기술자를 포로로 압송 → 에도 시대의 학문과 기술 발전에 이바지 • 청 중심의 조공·책봉 체제에서 벗어나 있었으므로 청에 사신을 파견하지 않음
<p>조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배를 비롯한 새로운 작물 전래 → 상품 작물로 널리 재배, 연초 산업 발달 • 임진·정유 전쟁 이후 일본과 국교를 재개하고, 에도 막부에 통신사(通信使) 파견(1607 ~ 1811) : 200년 동안 12회에 걸쳐 파견, 양국 우호 관계의 상징, 학술과 문물의 교류 촉진 • 임진 전쟁 당시 명군의 영향으로 관우 신앙 확대와 동묘 건립, 은(銀) 유통 • 청에 불모로 가 있던 소현 세자(1612 ~ 1645)는 독일 선교사 아담 샬과 교류하고, 천문학과 천주교에 관한 책 등을 가지고 귀국 • 병자전쟁 이후 청과 조공·책봉 관계 체결하고 정기적으로 연행사(燕行使) 파견 : 연행사 등을 통하여 점차 청의 문물을 접한 후 북학 운동 추진 → 천리경을 비롯한 천문 기구와 시헌력(아담 샬, 1645) 전래



① 중화 의식의 변화①(『미래엔 교과서, 수능 특강』, p.95 · 76)

천하가 모두 오랑캐를 따르지만, 우리나라만은 명나라의 제도를 고치지 않으니 청나라도 우리를 예의의 나라라 하여 감히 예의에 벗어난 것을 우리에게 강요하지 못합니다. 이 하늘 밑에 우리만이 동주(東周)를 위하고 있는데, 귀국(일본)에서도 중화의 것을 쓸 용의가 있습니까?

- 통신사 조태억과 아라이 하쿠세키의 필담(1711)

② 중화 의식의 변화②(『천재 · 미래엔 · 비상 교과서』, p.97 · 93 · 95)

- 오랑캐라고 부르는 것은 대개 변방에 거처하여 중원과 말이 통하지 않기 때문이다. 중원에 태어났다고 하여 중화가 되는 것이 아니며, 변방에 태어났다고 하여 중화가 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 중화인은 인의를 아는 것이고, 오랑캐는 윤리를 모르는 것이다. 그러하니 어찌 태어난 곳이 중원이나 아니냐를 가지고 중화인과 오랑캐를 구별할 수 있겠는가. - 오정제, 『대의각미록』
- 사람은 마음으로 어둠과 의로움을 알고 금수에게는 윤리가 없다. 어찌 (태어난) 곳이 중국 땅인가 그 바깥인가를 따져서 사람과 금수를 나눌 수 있겠는가? …… 순임금은 동이였고 (주나라) 문왕은 서이었다. 이러한 것이 어찌 그들의 거룩한 덕에 손상을 입혔겠는가? - 오정제, 『대의각미록』

③ 박지원(1737 ~ 1805)의 북학론(『비상 교과서, 수능 특강』, p.92 · 76)

우리는 저들(청)과 비교하여 한 치도 나은 점이 없다. 머리를 깎지 않고 상투를 틀고 있는 것만 가지고 스스로 천하제일이라고 하면서 “지금의 중국은 옛날의 중국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 중국 고유의 훌륭한 법과 제도마저 배척해 버리고 만다. 그렇다면 장차 어디에서 본받아 행하겠는가.

- 『연암집(燕巖集)』

④ 통신사와 문화 교류(『미래엔 교과서, 수능 특강』, p.94 · 76)

- 작은 배를 타고 오사카에서 출발하여 큰 배로 옮겨 탔다. 이날 쇄환된 사람은 120여 명이였다. - 오윤겸, 『동서상일록』
- 돌아가는 길에 고구마를 구해서 동래의 관리에게 줄 예정이다. 문익점이 목화를 퍼뜨렸듯이 이것들을 다 살려서 우리나라에 널리 퍼뜨린다면 큰 도움이 되지 아니하겠는가. - 조엄, 『해사일기』

개념 Check

- ① 효종(①, 재위 1649 ~ 1659) 시기에 병자호란의 치욕을 씻기 위해 청을 정벌하자는 ()이 대두하였다.
- ② 청의 강희제(④, 재위 1661 ~ 1722)는 오삼계, 경정충 등이 일으킨 ()과 타이완의 정씨 세력을 진압하였다.
- ③ 제주도에 표착한 네덜란드인 벨테브레이는 조선의 () 제작에 참여하였다.
- ④ 병자호란 이후 청에 인질로 끌려간 소현 세자는 서양인 선교사 ()과 교류하였다.
- ⑤ 병자호란 이후 조선은 청과 조공·책봉 관계를 맺고 정기적으로 ()를 파견하였다.

▶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기의 동아시아 상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만주족이 점령한 지 오래되자 중국 땅에 원망과 노여움이 일어나 오삼계 등이 삼번의 난을 일으켰습니다. 달단(達旦, 타타르)은 북쪽에서, 정성공 세력은 타이완에서 호시탐탐 중국을 노리고 있으며 변발을 강요받는 유민들이 애타게 명나라를 그리워한다고 합니다.

<보기>

- ㉠ 한국 - 조선중화주의가 확산되었다.
- ㉡ 일본 - 일본형 화이관을 내세우며 만세 일계의 신국으로서 일본의 중화적 정체성을 주장하였다.
- ㉢ 중국 - 역참 제도를 통해 다루가치가 지방에 파견되었다.
- ㉣ 베트남 - 중국의 분열을 계기로 응오 왕조가 수립되었다.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 명·청의 해금 정책과 조공 무역

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금 정책(1471 ~ 1567)을 펴고 조공의 형태로만 무역 : 조선, 류큐, 대월 등은 정기적으로 명에 조공하였고, 일본과 그 밖의 나라는 감합(勘合)을 발급받아 교역 : 명에 조공하는 국가 간에도 직간접으로 교역망 형성 • 영락제(③, 재위 1402 ~ 1424) : 정화(1371 ~ 1433)가 이끄는 함대를 동남아시아 등에 여러 차례 보내 위세를 과시하고 조공 확대 모색 • 은과 동전, 생사와 비단 등의 물품을 구하려는 명과 일본의 상인이 왜구로 가장하여 밀무역 주도 ↳ 왜구를 적극적으로 토벌하였으나, 밀무역 근절에는 실패 • 1567년 이후 상인들의 잇따른 요청을 받아들여 동남아시아 방면의 도항과 무역 허용 ↳ 많은 중국인이 동남아시아에 진출하여 베트남의 호이안, 필리핀의 마닐라 등지에 화교 사회 형성
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61년 반청 운동을 막고자 천계령(遷界令) 선포 : 타이완의 정씨 세력을 복속한 후 해제(1684) ↳ 청의 상인이 일본의 나가사키로 가 활발하게 교역 ↳ 일본의 은 유출 증가 → 에도 막부, 청 상인에게 신패(信牌)를 발급하여 무역량 규제

▶ 조선의 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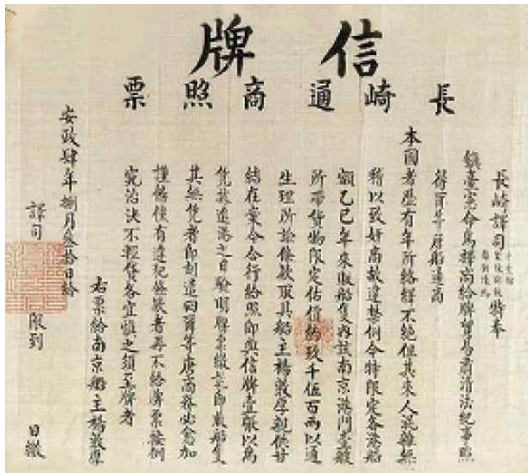
명·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공 관계를 맺고 정기적으로 사절[조천사(朝天使, 명), 연행사(燕行使, 청)] 파견 : 조공(종이와 붓, 화문석, 인삼 등), 회사(비단, 약재, 책 등) • 16세기 이후에는 사신을 따라가는 역관이나 상인들에 의해 사무역이 활성화, ex) 연행 팔포 무역(청) : 중계 무역을 통해 일본산 은과 명·청의 비단을 교환 • 청과의 교역 → 중강 개시(開市)·후시(後市), 책문 후시
에도 막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리와 유황, 향신료 등 수입 → 쌀과 인삼, 목면, 서적 등을 수출 • 쓰시마 번 → 조선과의 외교 교섭 관할, 통신사에 쓰시마 번의 관리 동행, 400 ~ 500여 명의 쓰시마 인들이 부산의 왜관 거주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류큐, 시암(타이), 자와 등의 상인과 교역

▣ 푸젠 상인의 호소(『금성 교과서』, p.103)

바다는 푸젠(타이완 섬의 북서쪽에 있으며, 중국 남동해안을 따라 위치) 사람들에게 발이나 마찬가지로입니다. …… 가난한 자들은 생계를 위해 항상 무리 지어 바다로 나갑니다. 해금이 엄격해지면 식량을 구할 길이 없어서 해안을 약탈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해민들은 가만히 앉은 채 속수무책으로 모든 재산을 빼앗깁니다. 아들과 딸은 물론이고 은과 모든 세간을 빼앗기니 피해가 날로 극심합니다.

- 『천하군국이병서』, 푸젠 상인이 제기한 해금령 관련 탄원서

▶신편



▶14세기 후반 ~ 16세기 전반의 동아시아 교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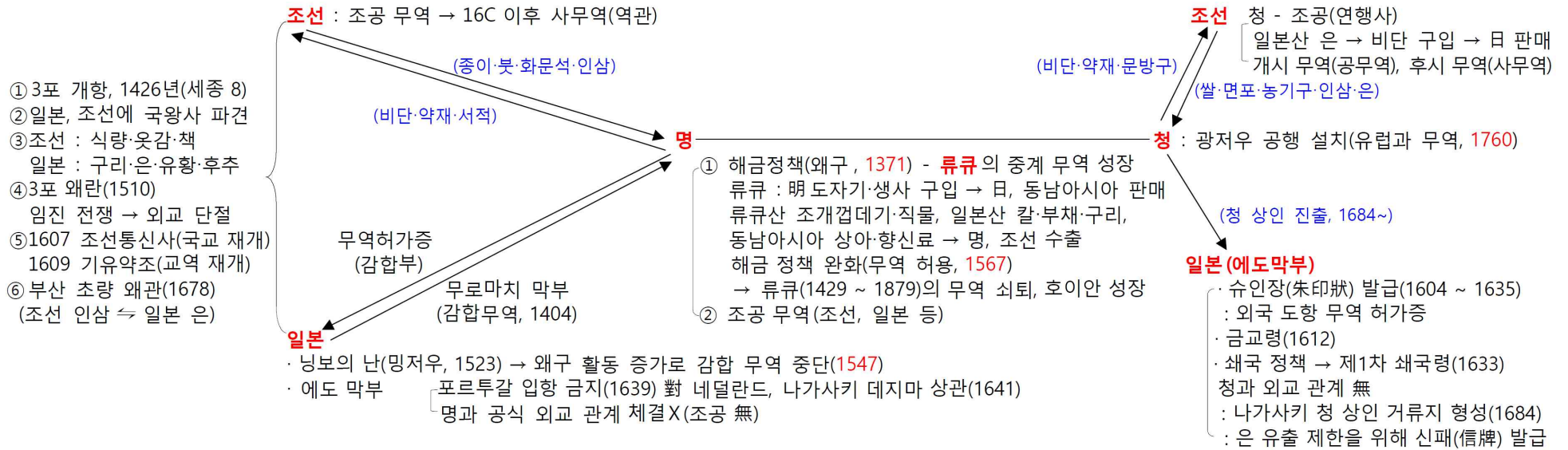


▶ 일본의 무역

무로마치 막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에 사신을 보내 조공 • 1547년 명과의 조공·책봉 관계(감합 무역) 단절 ↳ 명의 물품을 구하기 위해 밀무역에 종사하는 왜구 창궐 • 일본 상인의 활발한 해외 진출 → 동남아시아에 무역 거점 마련
에도 막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슈인장(朱印狀, 배를 타고 나가 무역할 수 있도록 막부가 발급한 증명서) 발급(1604 ~ 1635) → 교역 통제 • 슈인장 무역을 통해 다이묘 세력의 성장, 크리스티교 확산 → 크리스티교 탄압, 해금 실시 : 크리스티교 금교령(1612) → 시마바라의 난(1637) • 제1차 쇄국령(1633) → 포르투갈 상인의 입항 금지(1639) • 제한적인 무역 허용(나가사키) : 데지마 건설(1636) → 네덜란드 데지마 상관(1641) • 청과 조공 관계를 맺지 않았으나, 청 상인이 나가사키에 와서 교역하는 것은 허용 • 조선의 중계를 통해 청과의 간접적인 교역도 성행

▣ 류큐(유구)의 중계 무역(『천재·금성·비상 교과서, 수능 특강』, p.101·111·98·86)

- 나라는 남해(동중국해)의 가운데 있는데, 남북으로는 길고 동서로는 짧다. …… 그 땅에서는 유황이 산출되는데, 1년 만이면 다시 구덩이가 차, 아무리 파내어도 한이 없다. 해마다 중국에 사신을 보내고 유황 6만 근과 말 40필을 바친다. …… 해상 무역을 업으로 삼는다. 서쪽으로는 남만, 중국과 교통하고, 동쪽으로는 일본, 우리나라와 교통한다. 일본과 남만의 상선이 국도와 해변 포구에 모이므로, 백성이 포구에 술집을 설치하여 서로 교역한다.
- 신숙주, 『해동제국기』 유구국기
- 남해의 이름난 지역으로 삼한(조선)의 빼어남을 모아놓았고, 대명(중국)과 ‘광대뼈와 턱’과 같은 관계이면서 일역(일본)과도 ‘입술과 치아’와 같은 관계이다. 유구는 이들 사이에서 봉래도(蓬萊島, 낙원)이다. 선박이 오가며 만국의 가교가 되고 외국의 산물과 보배는 온 나라에 가득하다.
- 다카라 구라요시, 『류큐 왕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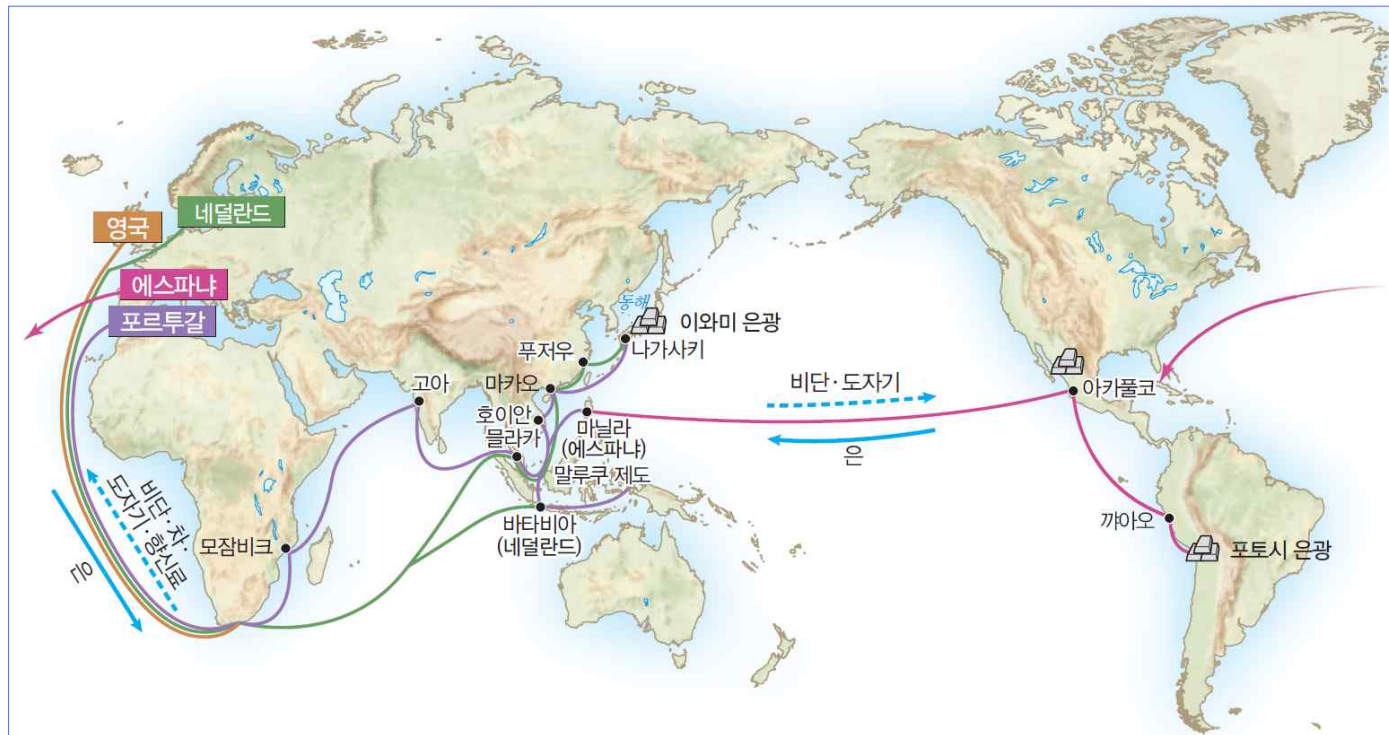


개념 Check

- ① 명은 조공 시절에 무역 허가증인 ()을 발급하여 교역하였다.
- ② 명은 () 정책을 실시하여 사무역을 금지하고 조공형태로만 무역을 전개하였다.
- ③ () 막부는 일본인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지자 ()을 발급하여 교역을 통제하였다.
- ④ 명의 해금 정책과 조공 무역으로 () 상인이 중계 무역을 펼쳐 큰 이익을 얻었다.
- ⑤ 조선은 세종 때 왜구의 근거지인 ()를 토벌하였다.
- ⑥ 청은 건국 초기 반청 운동을 막고자 1661년 ()을 선포하였으나, 1684년 타이완의 정성공 세력을 진압한 후 이를 해제하였다.
- ⑦ 에도 막부는 청 상선의 수를 제한하기 위해 무역 허가증인 ()를 발행하여 무역 허용량을 미리 정하였다.

▶ 유럽 상인의 아시아 진출

포르투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플라카 점령(1511) → 일본 최초 도착(1543) → 명으로부터 마카오 조차(1557) • 일본에 조총과 화약, 명의 생사와 비단을 팔고, 일본으로부터 받은 은으로 명의 비단과 도자기 등을 사서 유럽으로 수출
에스파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루손 섬의 마닐라 진출(1571) • 갈레온(galleon) 무역 : 멕시코의 아카풀코 항에서 가져온 은으로 명 상인이 가져온 비단, 도자기, 면직물 등을 사서 유럽에 판매
네덜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루쿠 제도 진출(1599) → 포르투갈로부터 지배권 약탈 • 타이완에 식민지 건설(1624) → 쌀과 설탕 등을 생산하여 판매 • 나가사키에 데지마 상관 설치(1641)



▶ 청의 공행 무역과 영국의 진출(『천제교과서』, p.103)

청은 1684년 천계령을 해제하여 상인의 국외 진출을 허용하는 한편, 유럽 상인에게는 광저우(1757년 개항)에 설치된 공행(公行)을 통해서만 교역하도록(공행 무역, 1760) 하였다. 영국은 다른 나라들보다 늦은 17세기에 동아시아 교역망에 동참(동인도회사 설립, 1600)하였지만, 18세기 중엽에는 동아시아 무역에서 주도권을 장악하였다. 청으로부터 면직물과 비단, 차 등을 사들이고, 은과 인도산 목화를 수출하였다. 차의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영국이 청에 지출하는 은의 규모도 커졌다. 이에 영국은 18세기 말부터 인도에서 생산한 아편을 청에 팔았다(삼각 무역). 그에 따라 청의 은이 대규모로 유출되었다.

▣ 1793년 건륭제가 영국 왕에게 보낸 서신(『금성 교과서』, p.110)

청의 건륭제(⑥, 재위 1735 ~ 1795)는 영국 조지 3세의 사절인 매카트니에게 …… “영국인만 광저우에서 무역하는 것은 아니다. …… 우리 제국의 생산물은 다양하고 풍부하여 다른 나라의 상품이 없어도 살아가는 데 지장이 없다. 특히 중국은 차, 도자기, 비단, 그리고 다른 재료들이 풍부하다. 이런 물건들은 너희 나라와 다른 유럽 국가들에서 수요가 많다. 너희에게 관용을 베푸는 차원에서, 짐은 다양한 상품을 저장할 수 있는 공적인 창고를 광저우에 개설하도록 지시하였다.”

- 윌리엄 T. 로, 『하버드 중국사 청 : 중국 최후의 제국』

개념 Check

- ① 포르투갈은 명으로부터 () 거주권을 획득하여 무역의 근거지로 삼았다.
- ② 에스파냐는 대형 선박을 이용하여 아메리카산 은과 필리핀에 집결된 중국 상품을 교환하는 태평양 무역인 () 무역을 주도하였다.
- ③ 에도 막부는 선교 문제를 이유로 17세기 전반에 네덜란드 상인에게만 나가사키의 ()에서 무역을 허용하였다.
- ④ 청은 1760년 유럽 상인들이 광저우에서 무역을 하도록 하였으며, 거래 또한 ()을 통해서만 할 수 있게 하였다.
- ⑤ ()은 18세기 중엽 다른 유럽 국가들을 제치고 청과의 무역을 주도하였다.

▶ 명·청대 서양 문물의 수용과 갈등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양 선교사를 통한 서양의 자연 과학 지식 유입 : 예수회(1534 ~) 선교사들이 포교를 위해 과학 지식과 총포 제작술 등 소개 	
명	마테오리치(1552 ~ 16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곤여만국전도』 제작(1602) → 중국인의 세계관 변화에 영향 크리스토프의 교리 문답서인 『천주실의』 간행(1603), 서광계(1562 ~ 1633)와 함께 『기하원본』 간행
청	아담 샬(1591 ~ 1666)	『시헌력』 제작(1645)
	카스틸리오네(1688 ~ 1766)	1715년 입국, 원명원(圓明園, 1725) 설계에 영향
전래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톨릭교회의 포교 허가(1692), 전례(典禮) 문제 발생(1704) 옹정제(雍正, 재위 1722 ~ 1735) → 크리스토프 선교 금지와 선교사 추방(1724) 	



▶ 조선의 서양 문물 수용

서양인	벨테브레이(1595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네덜란드인, 1627년(인조 5) 일본으로 항해하던 중 제주도에 표착, 조선에 귀화(박연), 무과 급제 훈련도감에서 근무하며 무기 제조 담당, 병자호란 참전, 명에서 수입한 홍이포의 제작법과 사용법 지도
	하멜(1630 ~ 169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네덜란드인, 1653년(효종 4) 제주도 표착, 14년 간 조선에 억류 1666년 나가사키로 탈출, 『하멜 표류기』 저술
실학자	홍대용(1731 ~ 1783)	북학과, 지구의 자전설 주장(『의산문답』)
	정약용(1762 ~ 1836)	중농학과, 『기기도설』을 참고하여 거중기 설계

▶ 일본의 서양 문물 수용

크리스토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센고쿠 시대 프란시스코 하비에르(1506 ~ 1552)의 포교(1549) 에도 막부의 크리스토프 금지령 반포(1612), 포르투갈 상인의 내항 금지(1639) 	
서양인	윌리엄 애덤스(1564 ~ 16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국 출신 항해사, 일본 표착, 귀화(미우라 안진),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외교 고문 기하학·수학·항해술 등 서양 지식 전수, 영국식 선박 건조, 유럽인 최초의 사무라이

▶ 명·청의 은 본위 경제 체제 확립

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국 초 보초(지폐)와 동전 유통 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초에 대한 불신으로 민간 거래에서 은의 유통 확산 :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상공업이 발달하면서 은의 사용 증가 • 일조편법의 전국 시행(157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품 경제의 발달과 은 경제의 진전으로 세금의 항목과 종류 증가 : 조세와 요역 항목 통합 → 토지 면적과 장정 수에 따라 은으로 징수 	<p>▶ 미제은(말굽은)</p> 
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은제 실시(1712 → 17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역 항목의 인두세인 정세를 토지세인 지세에 포함시켜 은으로 징수 : 은의 수요 더욱 증가 → 서양의 규격화된 은화도 유입되어 유통 	 <p>◀ 17세기 에스파냐의 은화</p>

▶ 은 유통의 확대와 조선(『천제교과서』, p.107)

조선에서는 은이 활발하게 유통되지 않았고, 은광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지도 않았다. 1503년 단천 은광에서 연은분리법이 개발되어 은 생산량이 늘어났지만, 비단 등 사치품의 수요 증가로 은은 계속 부족하였다. 16세기 중엽 이후에는 무역을 통해 일본의 은이 다량으로 조선에 수입되었지만, 그 중 상당수가 생사와 비단을 사느라 명으로 유출되었다. 명은 왜란 중에 군사비를 많이 지출하여 은 부족과 은 가격 상승에 시달리자, 조선에 은을 공물로 요구하였다. 이에 조선은 일본과의 무역을 통해 인삼과 중국의 비단을 일본에 팔고, 그 대금을 은으로 받았다. 조선으로 유입된 일본 은이 다시 중국으로 유출되는 현상은 17세기 후반까지 계속되었다.

▶ 일본과 아메리카 은의 유통(『천제교과서』, p.107)

명에 은을 주로 공급한 것은 일본이었다. 일본은 1526년 이와미 은광을 개발하고, 1533년 조선에서 새로운 형태의 회취법을 도입하고 이를 은 생산에 활용하여 1539년 이와미 은광의 은 생산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렇게 생산된 은은 여러 경로를 거쳐 명으로 유입되었다. 일본의 은 수출은 16세기 말 전 성기에 도달하였으며, 당시 전 세계 은 생산량의 3분의 1가량을 생산하였다. 16세기 중엽에는 아메리카에서 은 생산이 증가하여 유럽인의 아시아 상품에 대한 구매욕을 자극하였다. 그리하여 마닐라를 거점으로 삼은 에스파냐의 갈레온 무역과 마카오의 포르투갈 상인,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등을 통해 아메리카 대륙의 은이 동아시아에 대량으로 유입되었다.

① 서양 선교사의 활동(『미래엔 교과서, 수능 특강』, p.104 · 88)

- 중국 지식인 : 천주가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고 그것을 변화·발전시킨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 서양 선교사 : 집은 스스로 세워질 수 없고 언제나 목수들이 완성합니다. 천지는 스스로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천주가 반드시 계심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 마테오리치, 『천주실의』

② 서양 상인의 진출과 교역의 변화(『미래엔 교과서, 수능 특강』, p.101 · 86)

- (문순득은) 마카오에 도착하였다. 필리핀 사람과 홍모(紅毛) 서양인 수만 호(戶)가 살고 있다. 땅은 좁고 사람은 많아서 집 위에다 집을 올리고 있다. 관청이 하나 있는데 주로 변방을 살피고 손님을 접대하며 상인에게 세금을 징수한다. …… 양저우 이후부터는 배가 갑문과 도크를 통과해서 가는데, 양안은 돌로 독을 쌓았고 독 밖의 논은 모두 수면보다 수십 자 아래에 있었다. 배들은 운하를 통해 가는데 모두 군사들이 끝었다. - 정약전, 『표해시말』
- 에스파냐 사람이 필리핀 제도를 영유하고 나서부터는 훨씬 많은 중국인이 오게 되었습니다. 매년 적어도 여덟 척, 어떤 해에는 스무 척에서 서른 척이 나 되는 중국 배가 내항하였고, 모두 면포와 비단 같은 옷감을 가득 싣고 있었습니다. - Blair and Robertson

③ 16세기 은의 유통(『천재 교과서』, p.106)

16세기 명에서 금과 은의 교환 비율은 1대 6이었다. 같은 시기 유럽에서의 1대 12에 비해 은의 가치가 2배나 높았다. 만일 유럽 상인이 중국에서 거래할 일이 있으면, 유럽에서 상대적으로 싼 은을 구입하여 중국에 가져가는 것만으로도 100%의 환차익을 누릴 수 있었다. - 주경철, 『문명과 바다』

④ 명의 조세 제도와 은(『천재 교과서, 수능 특강』, p.106 · 87)

오늘날 지폐는 통용되지 않고, 동전만이 겨우 작은 교역에만 사용될 뿐, ㉠**모든 조세 업무를 은 하나로만 하니** 은이 부족하게 되었다. …… 은이 부족해 지는데도 부세는 옛날 그대로이고 교역도 변함이 없다. 허둥지둥 은을 구하고자 해도 어디에서 구할 수 있겠는가?
- 황종희(1610 ~ 1695), 『명이대방록』 재계편

⑤ 조선의 은 유통①(『금성 교과서, 수능 특강』, p.107 · 88)

우리 동방에는 은광이 많아 고려 말에 명의 과도한 요구로 백성이 견디지 못하였다. 조선 초에 요구하여 명으로 보내는 공물(은자)을 면제받았으나 그것을 화폐로 쓸 수도 없으므로 왕께서 은 채굴을 금지하는 법령을 제정하셨다. …… 그 후 2백 년이 지나 임진왜란에 이르러 명에서 은을 우리나라에 주고, 군량과 군공 포상도 모두 은을 썼다. 이로써 은화가 유행하였다. - 신희, 『상촌고』

⑥ 조선의 은 유통②(『비상 교과서』, p.103)

호조가 아뢰기를, “근래에 와서 술과 고기, 소금, 간장 등의 소소한 값들은 모두 은을 사용하고 있는데, 나라의 백성들이 오히려 그 덕으로 생계를 꾸려 간다고 합니다. 명군을 상대로 장사할 때 처음 시도하였는데, 오래 시행하고 나서는 습속이 되어 술을 팔고 쌀감 파는 사람들이 물건을 살 사람을 만나면 반드시 먼저 은이 있는지 물어본다고 합니다.

- 『선조실록』

⑦ 에도 시대의 은광 개발(『비상 교과서, 수능 특강』, p.103 · 87)

게이초 12년(1607) 4월 처음으로 다량의 은을 발견했을 때, 인근 지역뿐만 아니라 먼 곳까지도 이 소문은 널리 퍼졌다. 같은 해 8월과 9월에는 각지에서 사람들이 매일같이 끊임없이 몰려들었다. 그중에는 주군을 잃은 무사도 있었다. 게이초 13년 봄에는 이들이 대여섯씩 무리를 지어 계곡과 인나이 촌락에 집을 짓기 시작했고 더는 빌릴 만한 장소가 없게 되었다.

- 『일본서민생활사료집성』

핵심 정리

교역망의 발달과 은 유통

유럽 - 신항로 개척 이후 향신료, 중국 차·비단·도자기 구입 증가

- 포르투갈 { 물라카 → 마카오(1557) → 나가사키(~1639)
 { 조총, 明 비단·생사 → 日 은과 교역
 { 일본 은으로 명의 비단, 도자기 구입
- 에스파냐 { 마닐라 기지(갈레온 무역, 1571)
 { 멕시코 은 → 명 비단·도자기·면직물 교역
- 네덜란드 : 타이완(1624) - 나가사키(1641)
- 영국 { 동인도회사, 18C 중엽 청과 무역(차 수입)
 { 무역 적자→18C말 인도산 아편 판매
 (청의 은이 유럽으로 유출)
- cf) 유럽 → 아메리카 고추·감자·고구마·담배 전래

명 ~ 청

- ① 은 경제권 : 은 가치가 유럽보다 2배 높음
- ② 명 초기, 은 사용 금지, 지폐 보초·동전 장려
but 민간 은 활발 유통
- ③ 조세 제도[일조편법(1573), 지정은제(1730)]

조선 : 명의 금, 은 요구 → 조공 품목에서 금, 은 제외

- ① 쌀 · 면포 등을 화폐로 사용
- ② 면포 수출로 일본의 은 유입 증가
- ③ 일본 ~ 조선 ~ 명 : 은을 이용한 중계무역
- ④ 단천연은분리법(김감불, 1503)
- ⑤ 임진 전쟁에 명군 참전으로 은 유통
- ⑥ 청과 무역 활성화 → 은광 개발, 일본 은 사용
- ⑦ 상평통보(1633·1649·1678) 유통 확산
대외 무역, 고액 거래에는 은 사용

일본

- ① 15C 초 동전 유통 → 16C 은 유통 증가
17C 에도 막부, 금·은·동전 → 화폐 사용
- ② 이와미 은광 개발(다이묘 참여, 1526)
- ③ 회취법 도입과 활용(1533 → 1539)
- ④ 16C말 세계 은 생산량의 1/3차지
- ⑤ 16C 중반 일본 은 → 조선 → 라오동·베이지
- ⑥ 에도 시대 은 수출 금지(1688)

개념 Check

- ① ()는 서광계와 함께 『기하원본』을 간행하여 유클리드 이론을 중국에 소개하였다.
- ② ()는 에도 막부의 외교 고문으로 일본과 네덜란드, 영국 간의 통상에 기여하였다.
- ③ 조선 후기 정약용은 『_____』을 참고하여 거중기를 설계하였다.
- ④ 명에서는 고액권인 ()에 대한 불신으로 은이 민간 거래에서 유통되었다.
- ⑤ 청은 1712년부터 정세를 토지세에 합쳐 은으로 징수하는 ()를 시행하였다.
- ⑥ 센고쿠 시대에 은 제련 기술인 ()이 조선에서 전래되어 은 생산량이 급증하였다.
- ⑦ 16세기 중반에 일본의 은이 조선을 거쳐 라오둥, 베이징으로 유입되는 ()이 형성되었다.
- ⑧ 1710년 (대마도)에서는 조선은 인삼을 수입하기 위해 인삼대왕고은(人蔘代往古銀)이라는 은화를 제작하였다.



<인심대왕고은>

▶ 다음 (가), (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가) 강희 11년에 인준하였다. 바닷가에 거주하는 백성 대부분을 내지로 옮겨오게 하여 도적을 감추거나 모으고 돕는 폐단을 막는다. 그래서 이들이 해도에 있으면서 집을 짓고 거주하며 농사를 짓는 경우가 있다면, 재물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금지한 법을 위반한 예에 따라 죄를 다스리도록 하라.

(나) 요즘에 와서 강희제가 해금을 열었으므로 중국 배의 내함이 200척에 이르게 되었다.

- ① 일본에서 오년의 난이 발생하였다.
- ② 조선이 일본과 외교 관계를 단절하였다.
- ③ 리 왕조가 문묘와 국자감을 설치하였다.
- ④ 청이 타이완의 정성공 세력을 진압하였다.
- ⑤ 중산 왕조가 삼국을 통일하여 류큐 왕국을 수립하였다.

▶ 다음 문서가 발급된 시기의 사실로 옳은 것은?



- ① 한국 - 주변국과의 교역을 위해 3포를 개항하였다.
- ② 중국 - 주변국에 화번공주를 파견하였다.
- ③ 중국 - 교초의 가치가 폭락하면서 은 가치가 급등하였다.
- ④ 일본 - 전당사를 파견하여 선진 문물을 수용하였다.
- ⑤ 일본 - 데지마에서 네덜란드 상인과 교역을 벌였다.

▶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가) 은(는) 아카풀코에서 마닐라로 가는 갈레온 선에 실린 상품이었다. 에스파냐 상인들은 이것으로 중국의 비단과 도자기를 구입하였다.
- 이와미 광산에서 (가) 이(가) 발견되자 다이묘들은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이것을 경쟁적으로 확보하려고 하였다.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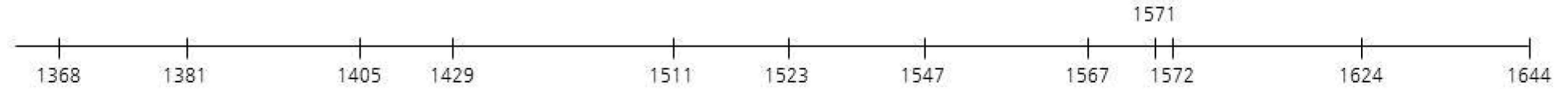
- ㉠ 한국 - 삼포의 난이 일어나는 원인이 되었다.
- ㉡ 중국 - 일조편법에서 세금 납부에 이용되었다.
- ㉢ 일본 - 감합 무역 시기 최대 수입품이었다.
- ㉣ 일본 - 회취법의 도입으로 생산량이 증가하였다.

- ① ㉠, ㉡
- ④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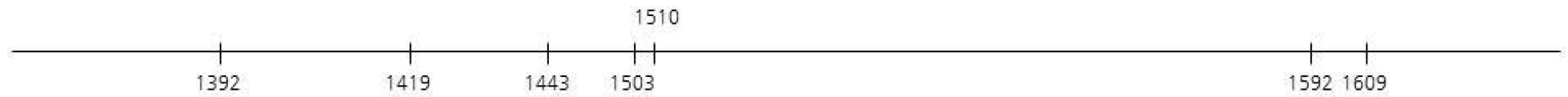
- ② ㉠, ㉢
- ⑤ ㉢, ㉣

- ③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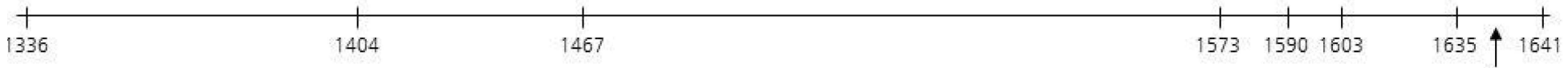
▶ 중국



▶ 조선



▶ 일본



1636

1637

1639